

# 관리비 부담 동의안한 조선대에 광주시, U대회 양궁장 배정했다

### 서정성 광주시의원 제기 광주여대·남부대는 동의 형평성 논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신설 경기장 입지선정과 관련, 최근 경기장 후보지로 선정된 대학 간 관리운영 협약 요건이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광주시는 신설 경기장 입지선정과 관련, 시 재정을 줄이기 위해 시설물 관리운영비를 대학 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내세웠음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은 대학을 경기장 입지로 선정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시의회 서정성(민주·남구 2) 의원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신설 경기장 입지 선정에 대해 사전에 각 대학 측에 체육시설 부지 무상제공, 지상권 설정, 관리운영비 학교법인 부담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해 동의를 구했다.

이에 따라 체육관 후보지와 수영장 후보지 입지를 신청한 광주여대와 남부대는 광주시가 제시한 3가지 조건에 모두 동의했지만, 체육관·수영장·양궁장 후보지 입지를 신청한 조선대는 관리운영비를 광주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지상권 설정 또한 광주시가 5년 이후 조선대에 기부 채납하는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조선대는 또 체육시설 부지 무상제공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를 얻은 뒤에 가능하다는 조건부 동의를 했다.

이처럼 조선대가 운영비 부담 등을 시에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지상권 설정 및 부지 제공 등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했음에도 광주시는 조선대를 양궁장으로 입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한결같이 주장해온 U대회 이후 관리운영비 대학부담 원칙과 어긋날 뿐 아니라 대학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광주여대와 남부대가 U대회가 끝난 뒤 관리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선대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운영비 전액 부담에 난색을 표할 경우 시가 혈세인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정성 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 2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U대회 경기장 입지선정과 관련해 대학과의 운영비 협약이나 중앙부처 승인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대학간 형평성 등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라며 “앞으로 신설 경기장이 들어설 대학과 구체적인 세부협약 체결 시 운영비 협약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대학에 경기장을 신축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U대회 최종 사업계획은 문화관광체육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부처와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U선수촌 화정주공 주민 27일부터 이주 시작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으로 사용될 광주 서구 화정주공아파트 조합원들이 오는 27일부터 이주비 신청을 하는 등 입주민 이주가 본격화된다.

21일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선수촌 시행사인 현대건설과 외환은행은 이주 조합원에 1인당 2100만~31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이사회 100만원

을 무상 지원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연말까지 이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조합원 2900가구 중 96%인 2천784가구가 재입주를 신청한 상태다. U대회 선수촌은 내년 4월에 착공해 총 3726가구 규모, 지상 15~33층 35개 동으로 건립된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북한 방문한 7대 종단 대표들



# 7대종단 대표단 평양방문

역사상 처음으로 동시 방문하는 한국의 7대 종단 대표들이 21일 오후 중국 선양(瀋陽) 태오센(桃仙)국제공항에서 고려항공편을 이용, 평양으로 향했다. 종단 대표들이 21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주 기독교 목사,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자승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최근덕 성군관장, 임윤길 천도교 교령.

/연합뉴스

# “정부 비축미 저가 방출 4000억 날렸다”

### 민주 김영록 의원 밝혀… 64만5000톤 판매, 쌀값 못잡고 농민 피해만

정부가 물가안정을 빌미로 공공비축미를 저가로 방출, 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데 대해 농민들이 크게 반발<광주일보 21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정부보유미 저가 방출로 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2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2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총 64만5000톤을 시중에 저가로 방출, 4000억원

에 달하는 양쪽회계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회계상 양쪽회계 손실액 4000억원의 일반예산에서 메워야 하는 것”이라며 “이는 농민 지원사업으로 활용해야 할 예산 4000억원이 사라진 것으로 농식품부가 가늠하기 어려운 농민에게 이중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판매가격이 4만4080원인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총 64만5000톤을 시중에 저가로 방출, 4000억원

에 달하는 양쪽회계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판매가격이 5만1325원인 2010년산 쌀을 지난 7월1일 4만6000원에 6만3000t 방출하는 등 5차례에 걸쳐 24만3000t을 저가로 풀었다.

김 의원은 “물가가격 상승률이 8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자 정부가 쌀값과 농산물 가격을 희생물로 삼고 있다”며 “쌀값도 못잡고 농민 희생만을 강요하는 양곡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 ‘RDF사업’ 예산 확보 공다툼

〈폐기물고형연료화시설〉

### 한나라 정용화 위원장

#### “박재완 기재부장관 만나 확보”

내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에 출마할 예정인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전남지역 특별위원장인 박재완 기재부장관과 만나 폐기물고형연료화시설(RDF) 실시계획 국고 예산(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데 대해 조영택 민주당 의원(광주 서갑)이 반박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21일 “지난 16일 강준태 광주시장이 기획재정부에서 RDF 실시계획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으니 하달해 도움을 요청. 당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설득해 간신히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정 위원장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여당 인맥을 통해 힘을 발휘했다면 왜 기재부가 막판까지 RDF 예산 반영에 반대. 강 시장이 급박하게 도움 요청을



〈정용화 위원장〉



〈조영택 의원〉

### 민주 조영택 의원

#### 강시장 도움요청에 예산실장 설득

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RDF 예산 반영을 요청,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며 “특히, 정부예산안 편성 막판까지 광주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RDF 예산 반영을 현실화시켰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당시 박 장관에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RDF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한 뒤 “이는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가 같은 두 사람이 지역 현안을 놓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전남 낚은 수도권 10년간 4500억 썼다

### 한나라 이범관 의원 국감 자료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 10년간 노후 수도권으로 인한 누수로 4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근 공개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2009년 노후 수도권으로 인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의 누수량은 84억㎡로, 수돗물 생산 원가를 고려하면 손실액은 연평균 5368억원, 총 5조9000억원에 달한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상수도관망 총연장 15만4435km 중 21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수돗물 누수 방지를 위해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에 2014년까지 총 7368억원의 국고가 투입되지만 지자체에서의 집행이 부진하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목포·강진·완도·해남군 등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국비 사업비를 전액 이월시켰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고를 보조하더라도 지자체의 자체 재원 확보가 관건에 실행행들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상수도관망 사업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실마, 옆친네 덮치진 않겠지?!

## 광주시-전남도 오늘 광역행정협의회

광주시와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서남권 원자력안전공단 공동 유치,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광주시가 지난 7월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장성·영광·담양 등 인근 전남 지자체와 공동현안을 논의하는 ‘광역행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강준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시·도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를 갖는다.

광주시는 이번 협의회에 평동 군 흥련장 이전 사업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6건을, 전남도는 무안 공항 활성화 및 동북면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7건을 제안했다. 또 광주·전남 방문주간 운영 정례회를 통한 관광 활성화는 양 시·도가 공동으로 제안했다. 특히 평동 군 흥련장 이전 문제와 동북면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비사업의 경우 여태껏 주요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해결방안이 나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

NEW 신제품 담배 가격공고

OASIS Spirit of BAISHA

2011년 9월 22일 새롭게 출시되는 오아시스의 가격을 공고합니다

제품명	타르	니코틴	포장구분	소비자가격
오아시스 Spirit of BAISHA 내추럴 플레이버 1mg	1.0mg	0.10mg	20개비/갑(박스형)	2,500원
오아시스 Spirit of BAISHA 내추럴 멘솔 1mg	1.0mg	0.10mg	20개비/갑(박스형)	

실제로 흡입되는 타르와 니코틴의 양은 흡연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광고에 표기된 "내추럴"은 다른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광고는 담배사업법 제 18조 4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12조 1항, 2항 및 3항에 의거한 제조 담배의 판매가격 공고입니다.